

# 외식물가 급등에 간편식 판매 '날개'

### '1끼 1만원' 붐기에 집밥수요 증가... 지난달 외식물가 상승률 3% 이마트 광주점 '델리' 코너 전년보다 김밥 50%↑ 샌드위치 23%↑

외식 물가가 끝없이 치솟는 가운데,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즉석 조리식품과 가정간편식 상품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심리적 소비 마지노선인 '1끼 1만원'은 붐고 된 지 오래로, 지출 부담에 '집밥'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외식물가 상승률은 3.0%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2.9%) 대비 0.1%p 높았다.

특히 지난 2021년 6월 이후 35개월째 외식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을 웃돌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외식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의 외식비 항목을 보면 광주시의 외식 대표 품목 가격은 지난달 기준 대부분 1만원을 웃돌거나 근시일 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품목별로는 삼계탕(1만 6400원), 삼겹살(1만 5289원) 등이 1끼니 1만원을 웃돈지 오래였고,

비빔밥(9900원)과 냉면(9600원) 역시 거의 근접했다.

이에 따라 고물가에 시달리는 지역민들이 비교적 저렴한 간편식으로 눈길을 돌리면서 대형마트들의 즉석조리식품(델리) 매출이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 광주점은 올해 들어 델리 상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델리 판매액이 지난 26일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2% 신장했다.

품목별로는 직장인, 학생 등의 점심식사로 인기 있는 김밥류가 50.1%로 가장 많이 올랐고, 샌드위치(23.3%↑), 치킨류(12.3%↑) 등의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 외에도 가장 간편식 코너에서는 즉석카레 매출이 20.4% 뛰면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롯데마트는 치킨, 초밥 상품군 매출이 모두 두자릿수로 신장하면서 전체 즉석조리 상품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10%가량 상승했고, 최

근 저렴한 가격과 조리 편의성 등으로 인기가 높은 냉동 밀키트의 경우 매출이 20% 올랐다.

홈플러스 역시 지난 3월까지 온라인 기준 신선식품과 가정간편식 매출이 각각 14%, 20%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소비자들의 간편식, 즉석조리 상품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이 호응하는 유통업체의 대규모 행사들이 간편식 매출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롯데마트-슈퍼는 지난 2월부터 매주 실시하고 있는 '핫프라이스'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신선식품, 간편식, 생활필수품 등에 대해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이마트는 '가격파격', '가격역주행' 등 다양한 할인 행사를, 홈플러스 역시 '물가안정 프로젝트' 등을 통해 밀키트 등 다양한 간편식 할인 행사를 펼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3년 동안 외식물가가 가파르게 올랐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외식비 부담이 커지면서 간편식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보해양조, 다시마 활용 '다시, 마주' 인기

### 완도금일수협과 협업 개발

보해양조가 '로코노미(local+economy)' 트렌드 속에서 지역 특산품을 제품에 사용하거나 지명을 이용한 제품을 선보여 눈길을 끈다.

보해양조는 지난 4월 완도군, 완도금일수협과 협업해 세계 최초 다시마를 사용한 '다시, 마주' <사진>을 개발했다.

다시, 마주는 완도 지역에 우선적으로 출시돼 뜨거운 소비자 반응에 힘입어 광주·전남지역 CU, GS25, 이마트24 등 편의점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됐다. 다시, 마주는 초기 생산 물량이 전량 출고돼 현재 추가 생산을 앞두고 있다.

다시, 마주는 완도산 다시마를 활용해 소주

특유의 쓴맛과 자극적인 알코올 향을 덜어낸 부드러움이 일품이다.

보해양조가 지역 상생의 결실로 선보인 제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9년 여수의 상징인 돌산대교와 별빛을 라벨에 담은 '여수밤바다'를 여수 지역에 한정 출시했다. 또 2022년 웹툰작가이자 '기안84'와 협업해 '여수밤바다'에 기안84의 작품 4점을 라벨에 새긴 한정판도 내놓았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특산물과 감성을 다채롭게 활용해, 진정한 상생의 의미를 전달하는 '로코노미' 제품으로 소비자에게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여정"이라고 전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가스누출탐지차 2대 신규 투입 해양에너지 안전사고 예방 강화

해양에너지(대표이사 정희)는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 광주광역시' 실현을 위해 안전 장비의 선진화 및 과학화를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해양에너지는 법적기준과 동종업계보다 높은 수준의 최신행 장비인 가스누출탐지 차량을 2대 신규 구입해, 총 3대를 운영함으로써 안전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대응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

가스누출탐지 차량은 회사가 관리하는 지하 가스배관 시설물 2528km를 연 1회 순회하며, 가스누설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가스누출 위험과 안전사고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장기사용 배관에 대한 주가 누설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희 해양에너지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확대해 나갈 것이며, "가스 사고 없는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 광



해양에너지 가스누출탐지 차량.

<해양에너지 제공>

주를 만들기 위해 역량을 모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에너지는 광주시와 전남 8개 시·군에 안전한 도시가스 보급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사

업을 통해 지역 내 그린뉴딜 및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등 지역 상생발전에 힘을 쏟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광주상의 용산역 라운지 효율 운영 방안 논의

광주상공회의소는 지난 24일 광주시, 전남도, 전북도 등 호남지역 상공회의소와 함께 서울 용산역 라운지에서 전체 운영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광주·전남·전북 비즈니스 라운지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개 광역 지자체와 9개 상공회의소(여수·광양·목포·순천·전

주·익산·군산·전북서남)가 협력해 라운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라운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용환경 개선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2013년 광주시 등 3개 지자체가 함께 지역 기업들의 성장과 경제적 발전을 위해 마련한 용산

역 라운지는, 지난 10여 년간 16만 명이 넘는 기업인들이 방문했으며, 약 8300여 건의 비즈니스 협상을 통해 총 3조 3900억원 규모의 계약 체결을 도왔다.

비즈니스 라운지는 회의실 3곳과 사무·휴게 공간, 업무용 PC와 복합기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호남지역 기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회의실 이용 예약은 홈페이지(www.gj-jnbiz.or.kr)에서 가능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여성 경제활동과 출산은 '마이너스' 관계

### 통계개발원 '출산 격차 연구' 보고서 육아 쏠림... 맞벌이 가구 자녀 적어

우리 나라에서 육아 부담이 비교적 여성에 치중되면서, 국내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출산이 '마이너스' 관계라는 연구가 나오고 있다.

27일 통계개발원이 지난달 발간한 '경제 사회적 요인에 따른 출산 격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이 취업하거나 맞벌이인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자녀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개발원 연구진(우한수·심수진 통계개발원 사무관)이 최근 20년간(2003~2023년)의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해 25~44세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과 경제활동 상태 등 요인과 출산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다.

맞벌이 가구에서 자녀 수는 지난해 기준 1.36명으로, 비맞벌이 가구(1.46명)보다 적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저소득층에서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자녀-출산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가구가 많아 맞벌이 가구 자녀 수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여부별로 보면 여성 취업 가구

(1.34명)보다 비취업 가구(1.48명)의 자녀 수가 0.27명 많았고, 5분위에서는 그 차이가 0.34명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토대로 회귀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여성 소득의 계수는 -0.04로 자녀 수와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보였다. 여성 소득이 100% 증가할 때 자녀 수는 약 4% 감소하는 셈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2013-2019년 출산율 하락 원인의 40%는 경력 단절로 대표되는 고용상 불이익에 기반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연구에 따르면 기간 30대 여성의 평균 경력단절 비율은 꾸준히 감소해왔으나 주로 자녀가 없는 경우에 집중됐다.

이같은 현상은 우리나라의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22.99(+35.39)
↑ 코스닥	847.99(+8.58)
↓ 금리(국고채 3년)	3.413(-0.010)
↓ 환율(USD)	1363.80(-5.70)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 보험사기 ZERO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